

제 87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8.10.14)
정한론 ‘유감’

이원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한론의 역사적 배경을 크게 보자면, 일단 황국외교의 과잉이 있었고, 이어서 서양세력의 침략에 의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국체론에 입각한 이념적 대외침략론(정한론)이 성행하게 되었다.

일본은 만세일계 천황이 존재하는 특수한 나라로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의 국학자의 논리는 황국일본이야말로 만국의 조국본국이며 일본의 도가 우주제일의 정도이며, 천황은 만국의 군사(君師)라는 것이다.

그러던 중, 서양의 침략이 빈번해졌다. 페리의 등장(1853년 7월) 등, 18세기 후반 외국선의 빈번한 출몰이 있었다. 이에, 일본은 일본의 독립을 위해 중국(만주), 조선을 병합 또는 복속시켜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청일수호조규 및 강화도 조약시 일본의 대표를 비교해 보면, 강화도 조약시에는 비교적 레벨이 낮은 인사들을 보냈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대했던 수준을 알 수 있다. 조선과의 교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이고 타카모리는 무작정 군사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자는 주의였다. 그러나, 결국, 사이고 타카모리는 조선으로 파견이 되지 않았다. 만약 사이고 타카모리가 파견되었더라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역사이해에 있어서는 다면성이 필요하며, 우리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야 하며, 연구를 할 시에는 여러가지 면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Q&A>

Q.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한 것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이 왔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탄력을 받은 면이 있는가?

A. 그 당시 일본의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 사민평등 사상에 의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어서, 반란이 속출하였는데, 이러한 내란을 바깥쪽으로 돌리려고 한 면이 있다.

Q. 일본에서 국학자들이 세력을 잡았던 이유는?

A. 난학자들은 숫자는 많았으나, 정치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국학자들 중에는 정치가들이 많았다.

Q. 한국에서 일본의 국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국학은 주로 천황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으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